

인터뷰

보수 정치권 세대교체 “축적된 역사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문하령 기자 moonbym@knu.ac.kr

#. 미래통합당(통합당)은 지난 4번의 선거 동안 줄곧 빼아픈 패배를 겪었다. 이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장을 중심으로 당 개혁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낡은 보수’를 쇄신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9명 중 3명을 청년 할당으로 채웠다. 그중 비대위 정강·정책위원장은 맡게 된 김병민(경제통상학 2000) 동문을 만나 통합당에 부는 변화의 바람을 가늠해봤다.

지난 1일 출범한 통합당 비대위에 김병민 동문이 인선됐다. 정강·정책위원회를 이끌게 된 김동문은 통합당이 앞으로 나아갈 청사진을 직접 그려나가게 된다.

김동문은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당을 꿈꾸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러한 역할을 맡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가장 먼저 준비하는 정당, 그리고 국민의 삶을 앞서 챙기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정치상을 제시했다. 동시에 김동문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있는데 이는 양면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산업화뿐만 아니라 민주화의 과정까지 공동체에서 축적된 역사를 존중하며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문은 지난 2010년 28세의 젊은 나이로 서초구 의회에 입성하며 정치 활동에 입문했다. 이는 고승덕 전 의원과의 인연이 계기가 됐다. 지난 2007년 우리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김동문은 대동제에 고전 의원을 초청해 명사 특강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고승덕 전 의원이 학생 공동체 내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눈여겨본 것으로 안다”며 “이후 기초의원 후보공천을 제안받



김병민(경제통상학 2000) 동문은 지난 2007년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사진=김병민 제공)

게 됐다”고 밝혔다. 이때 최연소 기초 의원으로 당선됐던 김동문은 “이후 청년 기초의원 수가 늘었다”며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 된 것 같아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정 활동을 시작한 이듬해 김동문에게 뜻하지 않은 재난이 덮쳤다. 지난 2011년 한국 중부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우면산 주위에서 산사태가 연달아 일어난 것이다. 김동문은 “무너져 내린 흙이 도로와 아파트를 덮쳐 16명이 사망했던 재난 상황이었다”며 “한 달여간 피해 복구 작업에 매달렸다”고 회상했다. “현장을 수습하다 물리적 한계를 느껴 우리학교를 통해 봉사 인력을 요청하기도 했다”면서 “이때 군 인력과 장비도 투입됐는데 철수 전날에 읍 소하다시피 간청해 며칠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훈란스러웠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때 경험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와 ‘공감 능력’은 김동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됐다. “정치인은 누구보다 먼저 미래를 생각하고 이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장 4차 산업 시대에서 어려움을 겪을 이들은 사회적 약자들”이라며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공감하며 조금이나마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문은 교수, 시사 평론가, 방송인, 유튜버 등 다방면에서 활동해왔다. 김동문은 “고승덕 전 의원이 국회의원, 변호사, 교수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전혀 다른 분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연결고리를 찾으면 조금의 시간과 노력으로 여러 활동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동문이 찾은 연결고

리는 ‘선한 영향력’이었다. “의정 활동이 직접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면 그 외 활동은 간접적으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분야를 오갔던 경험은 김동문에게 큰 자산이 됐다. “작은 일이 쌓이며 점차 활동 범위가 넓어졌다”며 “지방의회의원으로 4년을 지내며 지역 언론과 밀착하며 쌓은 방송 경험이 전국 언론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자연스럽게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문은 이러한 신념으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뛰어들었다. “방송 출연도 우연히 나가게 된 토론 방송이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의정 활동에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기도 했다. 지난해까지 우리학교 행정학과 객원 교수로 교단에 섰다.

코로나-19 극복

“힘을 내요! 경희 동문!” 이벤트

경희의료원이 당신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기 간 : 2020년 6월 30일(화) 까지
대 상 : 경희동문 본인 및 가족
우대혜택 : 모든 건강검진 프로그램 50% 할인
문 의 : 02-958-8711-3

(경희의료원 본관 2층 동서건강증진센터)

[우대 프로그램 안내표]

우대금액 (여성 기준)	프로그램 구성 (여성 기준)
기본건강검진 29.5만원	기초검사, 혈액검사, 정밀혈액검사, 혈액기계검사, 심혈관계검사, 소화기기계검사 (위내시경, 복부초음파), 치과검사, 한방검사, 여성의학검사
그린건진 (30대) 52.5만원	기본건강검진+갑상선초음파, 유방초음파, 부인과초음파, 자궁경부암, 수면위 내시경, A형간염
블루건진 (40대) 67.5만원	기본건강검진+갑상선초음파, 유방초음파, 부인과초음파, 복부CT, 수면위내시경
골드건진 (50대) 90만원	기본건강검진+관상동맥CT, 흉부CT, 심장초음파, 경동맥초음파, 갑상선초음파, 유방초음파, 부인과초음파, 골밀도검사, 수면위내시경

※홈페이지(www.khmc.mc.or.kr)에서 더 많은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 실시 안내

2020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모든 재학생들은 강의평가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평가 결과는 강의 방법 및 강의내용 개선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학생들의 신중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 기간 :** 2020.06.15(월) ~ 06.30(화)
- 대상 :** 서울 · 국제 캠퍼스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생)
- 대상강좌 :** 학부 및 대학원 전체 개설 강좌
- 성적 일정 및 공시 기간 :** 2020.7.7(화) ~ 7.9(목)
2020.7.16.(목) ~ 7.17.(금) 17:00 (집중이수 대상강좌)
- 강의평가 실시 여부에 따른 성적조회 기간**
 - 강의평가 실시 학생 : 2020.06.22.(월) ~ 06.30.(화) / 07.06.(월)
2020.07.16.(목) ~ 07.17.(금) (집중이수 대상강좌)
※ 성적입력이 완료된 강좌에 한함
 - 강의평가 미실시 학생 : 2020.07.07.(화) ~ 07.09.(목)
2020.07.16.(목) ~ 07.17.(금) (집중이수 대상강좌)
- 강의평가 실시 방법**
 - 경희대학교 포털 접속 → 수업/성적 → 수업 → 강의평가 클릭
 - 강의평가 강좌 목록에서 강의평가의 [작성/조회] 클릭
 - 화면 상단의 답변방법 설명에 따라 설문문항을 모두 답변한 후, 강좌에 대한 개방형 질문(자유의견)을 입력하고, 하단의 [저장] → [제출] 클릭 (제출 후 수정 불가)
 - 강의평가 목록 화면에서 평가를 마친 과목이 [평가전]에서 [평가완료]로 변경된 것 확인
 - 실시한 과목의 평가내용을 다시 보고 싶을 경우에는 [작성/조회]를 클릭하여 조회
 - 목록에 있는 다른 강좌들도 같은 방법으로 모두 강의평가 실시
 - 강의평가 강좌에서 모든 강좌가 [평가완료]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후 화면 하단의 [로그아웃]을 클릭하여 강의평가 종료
 - 강의평가는 공정성을 위하여 암면으로 진행됩니다.

교무처 학사지원팀